





미·중, '관세 폭탄' 맞불 … 무역전쟁 돌입

세계 $1\cdot 2$ 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에 돌입했다.

6일 '경향신문' 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0시1분(동부시간 기준. 중국시간 6일 낮 12시1분)을 기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제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대상 품목은항공기 엔진, 일부 승용차·항공기·우주선, 리튬 배터리, 레이저·무선 설비 등 818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첨 단과학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를 정면 겨냥하 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관세 부과 개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경제 사상 최대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시각 대두 등 농수산물, 자동차를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

지기반인 '팜 벨트' (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대)의 생산품을 집중 공략한 조치다.

미국은 당초 예고한 500억 달러 중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장비, 플라스틱 등 284개 품목에 대해선 향후 2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도 이에 화학·의료설비·에너지 등 114개 품목의 관세 부과 대상을 공개한 상태다. 500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 규모인 3,750억 달러의 15%에 육박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향후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에는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세 계 최강국을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꺾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 멕시코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어 당사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월마트의 '탄핵' 티셔츠 판매하다 역풍 맞아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문구를 인쇄된 티셔츠 판매했다가 곤 욕을 치르고 있다.

3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IMPEACH 45' 라는 문구가 앞면에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 IMPEACH는 '탄핵'을 뜻하는 말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보이콧 월마트(#BoycottWalmart)' 라는 트위터 해시태그를 통해 보이콧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 티셔츠는 '올드 글로리' 라는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티셔츠로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에 대해 정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달라' 는 제품 설명이 붙어있다.

월마트는 '올드 글로리'의 제품 외에도 역시 '탄핵' 문구를 담은 다른 3종류의 티셔츠도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문구가 담긴 티셔츠와 머그잔, 모자 등도 판매하고 있다.

월마트가 의류에 인쇄된 문구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월마트는 '끈·나무·언론 인(Rope·Tree·Journalist)' 이라는 세 단어와 함께 '(단어를) 조금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든 티셔츠를 판매하다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들 단어를 조합하면 '언론인들을 나무에 목매달 아라'라는 의미가 되며 극단적 폭력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월 자동차 판매 '활기' 현대차 17.5% 증가

지난달에도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꾸준하고 견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실 업률과 강한 소비자 심리가 유가 상승, 금리인 상, 무역분쟁과 같은 악재를 상쇄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달 강력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과 트럭에 대한 구매를 계속 크게 늘린 결과다.

미국 1위의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6월 종료된 2분기의 자동차 판매가 1년 전보다 4.6% 늘어난 75만8,37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트럭과 크로스 오버(CUV) 신차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2위 업체인 포드자동차는 6월 중 23만635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UV 브랜 드는 8.1% 급증한 7만7,453대를 기록했다.

3위인 피아트크라이슬러는 6월 중 판매가 1년 전보다 8% 증가한 20만2,264대라고 밝혔다. 지프 브랜드가 19% 늘어나 역대 6월 판매기록상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다.

4위는 14만6,563대를 판매한 혼다자동차 가, 5위는 14만5,096대를 판매한 닛산자동차 가 차지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6만4,054대를 판매하며 6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5% 증가했다. 기아자동차는 5만6,571대로 8위를 차지했다. 전년동월비 0.8% 늘었다.

한편 GM와 여타 자동차업체들은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 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소비 자 가격을 높이고 제조업체들의 비용도 증가 해 자동차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